

246석 유지맨 전남 지각변동...5개군 묶어 1개 선거구 될 수도

선거구 획정 예상 시나리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고 이에 따른 선거구 획정 시나리오가 일부 알려지면서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뒤숭숭한 분위기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와 관련해 총 6가지 경우(지역구 수 244개부터 249개까지)의 수를 내놓았지만, 획정위 안팎에서는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2개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246석이나 249석이나와 무관하게 권역별로 보면 인구 상한을 웃도는 지역구가 많은 경기도가 현재(52석)보다 7석 늘어난 59석이 될 것이 확실해 보이지만 전남지역은 246석이나, 249석이나에 따라 지역구가 최대 2개까지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상당수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획정위가 정한 인구 기준인 8월말 현재 상한 인구는 27만8945명. 하한 인구는 13만9473명이며, 상한 초과 36개, 하한 미달 26개 등 조정대상 선거구는 총 62개다. 이중 광주에는 상한 초과 1개(북구을), 하한 미달 1개(동구), 전남에는 상한 초과 1개(순천), 하한 초과 4개(여수 갑, 장흥·강진·영암, 고흥·보성, 무안·신안) 지역구가 있다.

우선 광주는 현행 8석이 7석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상한 초과 지역구가 있어도 대전 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증설이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동구와 북구를 합쳐서 2개의 선거구로 만드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11석을 갖고 있는 전남의 경우 훨씬 복잡한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획정위 시나리오에서는 246석을 유지할 경우 2개, 249석을 택할 경우 1개의

인구 하한 미달 4곳 중 2곳 줄여야

여수갑, 을과 합치면 2곳 유지 가능

광주 동, 북구와 합쳐 2개 선거구로

지역구가 줄어드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획정위 일각에서는 전남은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장흥·강진·영암 ▲나주·화순 2곳을 해체하고 ▲고흥·보성 ▲해남·완도·진도 ▲무안·신안 3곳과 합쳐서 최종적으로 ▲고흥·보성·장흥·화순 ▲해남·완도·진도·강진·영암 ▲무안·신안·나주 3곳으로 재편하는 시나리오를 거론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 시나리오의 실현 불가능한 얘기라는 지적이 우세하다. 5개 군을 1개의 선거구를 구성하는 것은 농어촌 현실을 완전히 무시한 것으로 인구만을 기준으로 한 논리라는 지적이다. 또 지역·역사·문화적으로 공통성이 희박한 지역을 억지로 묶어 한 선거구로 만드는 것은 '탁상머리 헌법 해석'이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다른 방안이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이 시나리오에 관련된 전남지역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획정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246석인 경우 인구 상한 초과로 순천·곡성에서 곡성이 분리돼 광양·구례와 합쳐지는 '조정'이 있겠지만, 249석이 되면 순천시가 순천시갑·순천시을로 '분구'돼 1석이 늘고 곡성은 떨어져 나와 광양·구례와 합쳐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여수갑의 경우는 여수를 인구와 합칠 경우 2개의 지역구를 유지할 수 있어 당장은 감소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농어촌 홀대 안된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의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해 농어촌 지역 선거구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농어촌 지방 주권지킴이 모임의 염동열(왼쪽부터)·이윤석·권성동·박덕홍·황영철·장윤석·한기호 의원이 21일 국회에서 대책 마련을 위해 회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의석수 1석 이상 줄일 수 없어 광주 동구, 북·남구로 통합 불가피”

국회 정개특위 위원 신정훈 의원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가 전체 지역구 규모를 244~249석 내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광주·전남지역 선거구 감소 폭에 대한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역 정치권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각종 선거구 획정 시나리오가 나돌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광주일보의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정개특위 위원인 신정훈 의원의 인터뷰를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봤다. 다음은 일본일담.

-최근 일각에서 선거구 획정위의 방안대로 하면 전남에서 두 곳의 선거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아주 낮다. 전남의 의석수 감소폭은 최대 1석이다. 어떤 시나리오를 돌려도 두석이 감소되지 않는다. 인구 상한선을 충분히 넘는데 어떻게 지역구를 감축시킬 수 있나.

-전남의 지역구 두 석 감소 주장이 아무 근거가 없다는 것인가

▲영남 의석수 감소 폭과 연동해서 나오는 주장인 것 같다. 광역별로 인구수를 나눈 것을 근거로 제시하는데 이는 현실성이 떨어져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영남과 호남의 의석수 감소 폭을 맞춰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는 것 같다. 하지만 영남의 의석수는 67석이다. 30석의 호남과 감소 폭을 맞춰야 한다



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광주 동구의 지역구 통합은 피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 같다.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광주의 의석수 1석 감소는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동구는 북구나 남구로 통합

될 가능성이 크다.

-순천시의 분구 가능성은 있다.

▲249석으로 지역구 규모가 정해진다면 순천의 분구 가능성은 없지 않다. 이 경우 전남은 의석수가 줄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호남에 비해 영남의 의석만 많이 줄어들어 논란이 있을 수 있어 지켜봐야 한다.

-광주·전남의 20대 총선 의석수 감소폭을 예상한다.

▲광주 1곳과 전남 1곳 등 최대 2곳이다. 전북은 1~2곳의 지역구가 감소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호남에서 3~4석의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농어촌 대표성 확보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비례대표 의석 수를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 밖에 없다. 양당 대표가 만나 의원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309석 내에서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 여야가 의원 정수를 300석으로 합의했지만 여야 대표가 통 크게 합의한다면 수정 가능하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내달 13일까지 국회 제출...1회 한해 재획정 요구 본회의 가·부판 의결...11월 13일까지 통과시켜야

선거구획정안 향후 일정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인 선거구획정위가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세부 획정작업을 진행하면서 향후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획정위는 '구역조정소위원회'와 '경계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 작업의 속도를 높여 법정제출시한인 10월13일까지 국회에 획정안을 보고할 계획이다. 국회에 제출된 획정안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심사하게 된다.

정개특위는 획정안에서 위한 또는 위법적 요소가 발견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제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이유를 명기해서 획정위에 획정안을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할 수 있다.

획정안이 정개특위에서 가결되면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되지만, 정개특위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하기로 결정하면 획정위는 요구받은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다시 획정안을 마련해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획정안은 정개특위에 제출돼 심의 없이 행정적인 절차만을 밟은 뒤 법제사법위를 거쳐서 않고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되며 본회의에서는 '가(可)', '부(否)'만 의결할 수 있다. 국회의장은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된 뒤 처음 개하는 본회의에 이를 부의해야 하며 바로 표결절차를 밟게 된다.

문제는 본회의에서 획정안이 부결될 경우 발생한다. 이후 획정안을 수정할 주제와 본회의 처리 규정 등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한 바가 없어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국회 측에서는 획정위가 다시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획정위에서는 국회에서 직접 획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총선 5개월 전(11월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짓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국회는 10월13일부터 한 달 내에 획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박지경기자 jkpark@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자마 3일

459,000원(목)
549,000원(토)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문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츠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자마 오오도리이
▶ 미야자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츠쿠시마 본전
▶ 미야자마 오층목탑, 다카부타이
▶ 호텔[온천호텔 또는 1급호텔] 투숙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시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로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구라성
▶ 서양식 건물들이 모여 있는 모지로 레토르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아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무안 ⇄ 일본(기타큐슈) 직항

【1인 소호무역 장염자를 위한 시장조사 참가자 모집안내】

▶ **출 발 일** : 1차 - 2015년 10월 12일 (2박 4일)
2차 - 2015년 10월 15일 (1박 3일)
3차 - 2015년 10월 19일 (2박 4일)

▶ **모집인원** : 선착순 각 20명

▶ **포함내역** : 왕복항공, 숙박(조식포함), 차량(후쿠오카 시내 탐방시 제외)

▶ **모집마감** : 1차 - 2015년 10월 6일
2차 - 2015년 10월 8일
3차 - 2015년 10월 13일

▶ **문의전화** : 062-956-3979

■ **공동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정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편선(다인실) 또는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인원 여행자보험. **[특전] 선착순 40명 무안공항 왕복 수송**

■ **공동불포함사항** 상글차차,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